

베네수엘라 정치와 종교: 우고 차베스와 가톨릭교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조영현(서울대 라틴아메리카연구소)**

- I. 서론
- II. 이론적 고찰
- III. 베네수엘라의 정치
 - III.1. 폰토피호(Pacto de punto fijo)체제에서 우고 차베스의 등장까지
 - III.2. 우고 차베스의 패권 강화와 개혁시도(1999-2009)
- IV. 베네수엘라의 가톨릭교회
 - IV.1. 1958년에서 1998년까지
 - IV.2. 우고 차베스와 가톨릭교회의 갈등과 충돌
- V. 차베스 정권과 베네수엘라 교회의 관계 분석
- VI. 결론과 전망

I. 서론

베네수엘라에서 가톨릭교회는 역사, 사회, 문화,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핵심적인 기관이자 제도이다.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2-B00015).

** Young-Hyun Jo(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of Latin American Studies, latin-jo@hanmail.net), “La política y religión en Venezuela: enfocado en la relación entre Hugo Chávez y la Iglesia católica”.

“발견” 이후 교회는 정복, 식민, 독립과정에서 보이듯 이 대륙에서 지울 수 없는 역사적 흔적을 남겼다. 이점은 베네수엘라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독립 이후에도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왕당파와 공화파,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로 나뉘어 심각한 대립 양상을 보이며 19세기 역사의 중요한 부분을 장식했다. 그러나 20세기 중반 이후 교회는 정치권력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민주주의의 정착과 사회정의 실현, 인권수호 등에서 중요한 기여를 했다. 따라서 가톨릭교회는 지배엘리트 집단인 기업인, 노조, 군부와 함께 주요 정치세력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우고 차베스가 정권을 장악한 이후, 가톨릭교회는 정부와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교회는 친정부적 태도를 버리고 정권에 대한 반대세력의 중심축으로 등장했다. 야당, 사설 언론과 방송매체(Globovision, El Nacional, RCTV 등), 반정부 학생운동권, 기업인 등과 연대하며 그들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다. 따라서 차베스는 개혁과 혁명의 장애요소로 가톨릭교회를 지목했다. 교회의 주교들을 “혁명의 암적 존재”라고 천명함으로써 자신이 교회의 지도부를 신뢰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Conde Tudanca 2007, 9). 왜 가톨릭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인 주교회의는 차베스와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가? 왜 주교들은 정치적 문제들에 개입하는가? 교회의 지도자들은 왜 차베스의 정적이 되었는가? 가톨릭 주교회의와 차베스의 관계는 어떠한 변화 과정을 거쳤으며, 갈등과 충돌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러한 의문들은 모두 베네수엘라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 문제를 연구하도록 자극한다.

베네수엘라의 다양한 정부들과 교회의 관계 문제를 다룬 주목할 만한 선행연구들이 몇 편 있다. 우선 곤살레스 오로페사(González Oropeza) 신부가 다룬 *Iglesia y Estado en Venezuela*라는 저술이 가장 대표적이는데, 그의 연구는 “불라 인테르 가에테라”(Bula Inter Gaetera, 1493)부터 1964년 “모두스 비벤디”(Modus Vivendi)협정까지를 다루고 있다. 로드리게스 이투르베(Rodríguez Iturbe)도 같은 주제를 다루지만 주로 베네수엘라 독립 이후 교회와 국가 관계를 다루고 있다. 두 작

품 모두 풍부한 사료들을 근거로 분석한 연구라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그러나 1964년 이후부터 우고 차베스 대통령의 등장 전까지 연구는 전무하다. 차베스정권과 가톨릭교회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콘데 투단카(Conde Tudanca)가 가톨릭교회와 차베스 정부의 긴장관계에 대해 1999년부터 2006년까지를 역사적 관점에서 연구했고, 곤살레스 곤살레스(González González)는 선거에 가톨릭교회가 미친 영향에 대해 다루었다. 개헌안을 두고 차베스정부와 가톨릭교회의 대립을 담은 분석을 통해 전개한 카르멘 마리아 프리에토(Carmen María Prieto)의 연구가 있다. 그러나 아직 가톨릭교회와 차베스정권의 관계를 종합적 시각에서 분석한 연구는 부재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후일 라틴아메리카와 베네수엘라 정치와 종교관계를 이론화하기 위한 전 단계로 사례연구의 성격을 띠고 있다. 지면 관계상 차베스 정부와 가톨릭교회를 대표하는 주교단 사이의 관계가 주요 분석의 대상이 될 것이다. 가톨릭교회 내부에도 다양한 집단과 성향이 공존하기 때문에 모든 교회 구성원들을 분석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가톨릭 주교들로 구성된 협의체인 주교회의를 주로 다룰 것이다. 왜냐하면 주교회의가 제도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가톨릭 지도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가톨릭 교회의 모든 성원을 다루지 못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이 연구를 위해 먼저 필요한 정치와 종교,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이론을 간단히 고찰할 것이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정치 일반과 차베스 정권의 개혁방향의 전개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차베스 정권이 들어서기 이전의 베네수엘라 가톨릭교회의 모습을 언급하고, 차베스 정권과의 관계를 고찰할 것이다.

II. 이론적 고찰

종교와 정치는 제정일치의 특색을 보였던 원시시대부터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 특히 종교사회학 분야에서 종교가 야기하는 사회변동을 연구하면서 정치와 종교의 연관성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이 생산되었다. 다년간 라틴아메리카 정치와 종교를 연구한 다니엘 레빈(Daniel Levin)은 종교와 정치가 추구하는 목표와 구조가 서로 중첩되어 있어 필연적으로 상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즉, 정치가 전체 사회의 조직 원리들과 상징들을 다루며 인간 공동체의 형식을 부여하는 기재인 것처럼, 종교도 인간 존재 뿐 아니라 정치·사회적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와 상징들을 제공한다. 이 점에서 서로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다(1981, 3-13). 라틴아메리카에서 교회는 모든 정치·사회적 영역에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정당성, 교육, 보건, 자선, 정치적 반대와 같은 영역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따라서 종교적 사건이나 변화가 초래하는 정치적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잉거(Milton Yinger)는 정치와 종교 관계를 정치 집단과 종교 사이의 일치, 정치권력에 의한 종교의 이용, 그리고 정치권력에 대한 종교의 도전으로 분류했다. 일치는 주로 제정일치 형태를 띤 원시사회에서 많이 나타나는 관계이고, 이용이나 도전은 종교가 사회의 다른 부분에서 분리되거나 독립적일 때 발생한다고 보았다(1970, 409-424).

벨라(Robert Bellah)는 종교가 분화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종교제도와 정치제도, 혹은 종교지도자와 위정자 사이의 관계를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했다(1981, 164-175). 종교가 정치 체제와 밀착해 국교가 되는 경우 ‘긴밀한 통합’으로 보았고, 국가가 종교에 대해 중립을 지키며 모든 종교를 대등하게 대하는 경우 ‘정교 분리’로 이해했다. 종교가 사회 문제에 무관심한 경우 ‘지나친 분리’라고 명명했으며, 종교가 자신의 이상적 잣대에 의존해 그에 못 미치는 사회 체제를 비판하고 도전하는 경우 ‘창조적 긴장’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벨라는 지나친 통합 혹은 분리가 국가와 교회 양측 모두의 발전을 저해한다

고 보았다. 따라서 ‘창조적 긴장’ 관계를 종교와 정치의 가장 이상적 관계로 보았다.

브라질에서 나타나는 국가와 교회의 갈등을 주로 연구한 브루노(Thomas Bruneau)는 교회가 국가에 대해 가지는 자율성의 폭에 따라 네 단계로 나누었다(1974, 5). ‘연합’은 목표와 구조가 완전히 동일했을 때를 의미하며, ‘협동’은 분리된 구조를 유지하며 때때로 동일한 목표를 추구할 때를 말한다. 그리고 ‘경쟁’은 상이한 전략을 사용하며, 분리된 구조들을 통해 추구하는 유사한 목표를 의미한다. ‘갈등’은 다른 구조들을 통하여 추구하는 목표들이 상호 배타성 혹은 적대성을 내포할 때를 말한다. 그는 교회의 자율성은 국가와 갈등의 과정을 통해 발전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Ibid., 6). 그러나 이 갈등 관계는 교회의 예언자적 사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성서에서 말하는 예언자는 불의한 권력자에 대항하고,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요구하는 기존 제도를 비판하며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카리스마를 지닌 인물이다. 막스 베버는 예언자를 정의하며 최초로 카리스마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그에 의하면 예언자는 하느님의 명령이나 종교적 교의를 선포하는 사명을 지닌 인물이며 카리스마의 운반자이다(Weber 2004, 356). 예언자는 불의와 억압, 인권유린을 고발하고 해방과 구원, 희망을 선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예언자적 사명을 수행했을 때 종교와 정치,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갈등과 대립 관계로 빠져들 수 밖에 없다.

이탈리아 막스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Antonio Gramsci)는 어떤 계급도 폭력으로만 지배를 계속할 수 없으며 언제나 자신의 이익과 이념을 대변할 유기적 지식인과 이데올로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1986, 353-355; 1981, 487). 그람시의 노선을 따르는 오토 마두로(Otto Maduro)는 종교지도자와 성직자도 유기적 지식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들이 지배계급을 지지하면 종교는 사회 통합적 역할이나 보수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반대로 새로운 세계관이나 변혁적 이데올로기를 제공하면서 피지배 계급과 연대하면 종교는 피지배 계급을 해방시키는 혁명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았다(1978, 173-178). 따라서

유기적 지식인과 계급 간의 유대나 종교지도자들이 제휴하는 계급의 성격, 제휴의 강도도 정치와 종교 관계를 분석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오경환은 정치와 종교 문제를 다룰 때 종교 자체의 이념적 성향이나 교의보다 위정자와 종교지도자의 관계를 강조한다. 특히 어떤 상황에서 종교지도자들이 위정자에 대해 지지를 나타내고, 어떤 조건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보았다(1990, 315).

III. 베네수엘라의 정치

III.1. 폰토피호(Pacto de punto fijo)체제에서 우고 차베스의 등장까지

베네수엘라 주요 정당인 사회민주주의 노선의 민주행동당(AD), 가톨릭 사상에 기초한 기독교사회당(COPEI), 그리고 민주공화연합(URD)은 1958년 10월 31일 폰토피호협정을 체결했다. 베탄쿠르트(Rómulo Betancourt)와 칼데라(Rafael Caldera) 등 주요 정치가들이 주도했다. 공산세력이나 좌익 게릴라의 위협, 군사 쿠데타에 의한 정부 전복을 피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선거를 통해 평화적 정권교체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정치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으며, 국가 권력과 경제적 수입의 분배를 전제로 가능한 것이었다(Bautista 2009, 10-17).

정치적인 면에서는 무엇보다 신뢰할 만한 새로운 민주적 게임규칙을 만들기 위한 시도였다. 무엇보다 정치권력 주체들 사이에 국가발전과 현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부르주아 헤게모니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공통의 인식이 깔려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대연합이었다(Hernández 2008, 207). 정당이 핵심적 역할을 했지만 경제엘리트, 군부, 가톨릭교회, 조직된 농민, 노조 등 다양하고 이질적인 사회그룹들도 협상과 거래에 참여했다. 협상에 가담한 세력은 어느 정도 자신의 이익이 보장되었다. 한 예로, 군부는 정치문제에 간섭하지 않는 조건으로 예산 배당의 특혜, 교육보장, 보조금 등 각종 혜택과 보상

을 받았다. 이렇게 푼토피호체제는 향후 40년간 사회·정치행위자들에게 승인되는 새로운 게임의 룰이 되었다.

푼토피호협정 이후 민주행동당과 기독교사회당이 번갈아 집권하는 거대 양당체제가 확고히 자리 잡혔다. 이것은 두 정당의 득표율을 살펴보면 분명히 드러난다. 두 정당의 득표율은 1973-1988년 사이 총선의 약 80%와 대선의 90%를 차지할 정도였다(김영섭 2007, 57). 정당 사이의 타협이 어느 정도 정치안정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협약민주주의를 통해 형식적 민주화 이행이 가능했던 것은 시민사회나 민중영역이 정치적으로 활성화돼있지 않았고, 조직화 측면에서 미약했기 때문이다. 정당간 정책대결을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기보다 연립정권 구성의 기회에 편승하거나, 주요 보직과 예산을 서로 나눠먹는 등 변질되는 단점이 있었다. 양대 정당 내부적으로는 중앙집권적이고 수직적 권력구조가 고착화 되어 카리스마를 지닌 소수 인물들 중심의 정당으로 전락했다. 결국 창조적 경쟁이 사라진 ‘정당체제의 카르텔화’라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김영섭 2007, 73-76). 이렇게 푼토피호체제 하에서 민주화는 정치·경제적 여건의 성숙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된 것이 아니라, 좌익의 준동과 군사독재를 막기 위한 소수 엘리트 집단 간 타협의 산물이라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국가경제가 ‘악마의 배설물’ 이라고 불리는 석유라는 한 자원에 너무 종속되는 과행이 계속되었다. 베네수엘라는 OPEC의 멤버이며 원유 매장량에서 세계 1위, 원유수출 부문 세계 5위를 차지하는 석유대국이다. 매년 총수출의 70%, GDP 의 40%, 재정수입의 50%가 석유산업에 의존해 있었다. 그리고 전체 산업경기 및 경제성장이 국제원유시장의 동향에 따라 좌지우지 되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베탄쿠르트 정부(1959-1964)는 1960년대 제1차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수입대체산업화 전략을 경제발전 모델로 삼았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1974년 취임한 페레스 대통령(제1기: 1974-1979)은 석유 값이 4배로 인상되자 ‘위대한 베네수엘라’라는 기치를 걸고 적극적으로 산업

화에 박차를 가했다. 그러나 그가 제시한 청사진은 외채의 급증, 물가상등, 정치적 부패, 국영기업들의 누적된 적자로 위기에 봉착했다. 특히 1983년 2월 18일 ‘검은 금요일’이라고 불린 외채위기는 이 나라 경제에 결정타를 가했다. 국제유가의 급락은 지나치게 분배정책에 의존한 폰토피호체제의 허약한 실체를 드러냈다. 폰토피호체제에 기댄 베네수엘라 민주주의 체제의 위기는 이미 1980년대에 경제분야에서 시작해 정치·사회 전 분야로 확대되어 나타났다(Hernández 2008, 209).

에레라 정부(1979-1984)에서는 자본의 해외유출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1984년 민주행동당의 히아메 루신치 정부(1984-1989)는 외채를 모두 갚겠다고 호언하면서 팽창적 재정정책을 취했다. 결국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처럼 베네수엘라도 외채위기로 인해 ‘잃어버린 10년’의 늪에 빠졌다. 두 번째로 집권한 페레스 정부(1989-1993)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석유수입에 의존하는 지대추구형 국가인 베네수엘라는 레이건 정부가 주도한 워싱턴컨센서스 하에서 국제금융을 받고 경제개혁을 약속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긴축재정, 사회보장제의 축소, 주요 국유기업의 민영화, 미국식의 무역자유화를 실행해야 했다. 1976년 석유산업을 국유화 했던 장본인이 다시 민영화와 자유화의 기수로 둔갑하는 모순이 베네수엘라의 비극적 정치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정책 시행 11일 만인 1989년 2월 27일 긴축재정과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민중봉기가 수도 카라카스 한복판에서 발생했다. 대중교통요금 상승과 물가 폭등이 야기한 민중의 분노는 결국 유혈진압으로 끝났고, 수천의 사상자를 내고서야 마무리되었다. 이 사건은 민중을 배제하고 엘리트 간 협정에 의해 유지되던 폰토피호체제가 붕괴 단계로 들어선 것을 알리는 분기점이 되었다. 게다가 ‘볼리바르를 따르는 혁명운동-200’ 요원들과 함께 1992년 차베스가 일으킨 쿠데타는 폰토피호체제가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는 체제임을 분명히 하는 데 기여했다. 반미와 반신자유주의를 투쟁의 목표로 내

걸고 일으킨 쿠데타는 비록 실패했으나 우고 차베스는 이 사건을 통해 베네수엘라의 정치무대에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켰다.¹⁾

라파엘 칼데라 대통령(1993-1998)은 1993년 반신자유주의와 부정 부패 청산을 내걸고 당선되었다. 그러나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1996년 IMF로부터 14억 달러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국제금융기구가 제시한 ‘베네수엘라 아젠다’를 수용했다. 석유에 의존하던 베네수엘라 경제가 위기에 처하고, 지난 40년간 정치적 안정을 유지시키던 푼토피호체제가 붕괴하면서 정당정치는 부패 스캔들에 휩싸였다. 대의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실망이 국민 사이에 급속히 확산되었다.

III.2. 우고 차베스의 패권 강화와 개혁시도(1999-2009)

III.2.1. 1단계(1998-2002): 정치권력의 장악

1993년 칼데라 대통령에 의해 사면된 우고 차베스는 1998년 선거를 앞두고 구체제 청산을 목표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전격적으로 정치에 참여했다. 이미 기존 조직 ‘블리바르를 따르는 혁명운동-200’을 중심으로 각계의 진보진영을 규합해 선거조직 ‘제5공화국운동’(MVR)을 결성했다.

1998년 12월 10일 대선에서 유권자의 56.20% 지지라는 경이적인 기록으로 당선된 차베스는, 1999년 2월 2일 제헌의회 구성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약속했다. 4월 19일 제헌의회 소집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해서 87.75%의 찬성으로 통과시키고, 6월 25일 제헌의회 의원 선출 선거에서 총 131석 가운데 119석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그해 12월 16일 새 헌법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국민투표에서 71.78% 찬성표를 획득했다(Arráiz L. 2007, 205-208). 차베스는

1) 쿠데타 실패로 체포된 우고 차베스는 처음으로 국민 앞에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약 1분간에 걸친 TV 연설에서 그는 동료들과 부하들에게 혁명이 실패했음을 알리고, 항복과 무장해제를 권유했다. 동시에 쿠데타에 대한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고 약속했다. 숱한 실정과 부정부패가 있었음에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던 베네수엘라 정치문화 속에 처음으로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람이 등장한 것이다. 이것은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이때의 TV 연설로 그는 민중의 영웅이 되었다(Pérazza 2009).

이렇게 직접 국민에게 의사 결정권을 넘기며 정당성을 확보하는 ‘선거혁명’을 빠르게 진행시켰다. 선거에서 패배한 민주행동당이나 기독교사회당 등 전통 정당은 국민의 신뢰를 잃어 붕괴 직전이었고, 아직 이렇다 할 반대세력은 조직화 되지 못했다.

우고 차베스는 먼저 잘 조직되고 훈련된 군대를 동원하여 ‘볼리바르 플랜 2000’이라고 불리는 빈민지원사업을 실행했다. 빈민층에 필요한 학교, 병원, 보건소, 주택, 교회 등을 재정비해서 민중의 지지를 공고히 했다. 2000년 11월 우고 차베스는 혁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두 번째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 신속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의 승인 없이 법령을 선포할 수 있는 ‘대통령 특별입법권’을 획득했다. 비록 1년간 유효한 한시법이였지만 이법을 통해 차베스는 ‘49개 개혁입법’을 추진했다. 우선 석유산업 통제를 위한 탄화수소법, 토지법, 협동조합법, 어업법 등이 공포되었다. 이 법들은 주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이었다. 혁명이 본격적인 실생활 속에 개입되고 있음을 국민에게 각인시켰다. 과감한 개혁조치는 결국 반대세력의 조직화와 연대를 자극했다. 전통정당인 민주행동당과 기독교사회당을 비롯하여 우익 군소정당과 보수적 노동조합, 일부의 군부 인사, 기업가, 대지주가 반차베스 연대에 가세했다. 여기에는 차베스에 대해 저항하며 대항이념을 제공하는 가톨릭교회도 포함되었다.

III.2.2. 2단계(2002-2003): 쿠데타와 권력의 공고화

2001년 이미 차베스의 개혁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이 쿠데타를 주도할 것이라는 루머가 돌기 시작했다. 이것은 2002년 4월 12일 사실임이 밝혀졌다. 차베스는 군부 핵심세력에 의해 감금되었고, 사임을 강요받았다. 그러나 30만이 넘는 베네수엘라 국민은 차베스 복귀를 요구하는 가두시위에 참여했다. 군부 내 친차베스 성향의 경비대가 나서 이를 만에 대통령을 다시 권좌에 복귀시켰다. 쿠데타는 20여명의 사망자와 100명이 넘는 부상자를 양산했다. 그해 12월 군사 쿠데타가 실패하자 반대세력은 ‘자본 총파업’을 주도했다. 일종의 경제 쿠

데타였다. 국영석유회사 수뇌부와 노조가 주축이 되고, 주요 자본가 세력이 가세해 2003년 2월까지 베네수엘라 경제를 마비시켰다. 시민들은 식량, 석유, 전기 부족과 교통마비로 고초를 겪었다. 그러나 결국 자본과업이 실패로 돌아가자 국영석유회사의 간부들과 노조지도자들은 추출되고, 차베스가 국가경제의 중심축인 석유산업을 장악했다. 차베스는 석유에서 얻어지는 자금으로 기금을 마련해 ‘미션’이라는 사회정책을 실시했다. 미션은 교육, 의료, 유통시장, 토지, 식품, 문화, 생태, 원주민과 관련된 사회사업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어 사회적 약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이었다.

III.2.3. 3단계(2004-현재까지): 볼리바리안혁명에서 21세기 사회주의로

자본과업의 실패는 차베스에 대항하는 반대세력에게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다. 선거혁명에 제동을 걸기 위해 반대세력은 2003년 새 헌법이 규정한 ‘주민소환투표’를 강력히 요구했다. 유권자 20% 이상이 요구하면 가능한 이 투표는 결국 2004년 8월 15일에 실시됐다. 그러나 59.25%의 투표자가 대통령을 신임함으로써 반대세력은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입었다.

2004년 10월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차베스 진영이 표를 끌어갔고, 2005년 12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차베스 측 후보들은 승리했다. 두 선거는 대통령의 정치적 헤게모니를 더욱 확고히 했다. 같은 해 광업의 국유화를 선언했으며, 2006년에는 원유와 천연가스를 포함한 모든 자원의 국유화를 선언했다.

또한 차베스는 민중이 자신의 주권을 행사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를 조직하는 것을 지원했다. 이것은 민중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 개혁을 실시하기 위한 기구였다. 반혁명 세력을 누른 데 자신감을 얻은 차베스는 2005년 1월 세계사회포럼에서 사회주의를 재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5월에는 20세기에 실패한 ‘국가사회주의’가 아닌 21세기 실정에 맞는 사회주의를 건설하자고 천명했다. 그러나 차베스는 ‘21세기 사회주의’가 어떤 것인지 자세히 밝히지는 않았다.²⁾ 단지 이것이 그의 집권 3기(2007-2012) 실천 프로

젝트가 될 것임을 암시했을 뿐이다.

우고 차베스는 2006년 대선에서 730만 표를 얻어 연임에 성공했다. 60%가 넘는 유권자가 개혁정책을 지지했다. 같은 해 브라질, 니카라과, 에콰도르 등 차베스에 우호적인 지도자들이 정권을 장악한 것도 과감한 정책을 펴는데 호의적인 환경을 제공했다. 그러나 2007년 12월 2일 우고 차베스가 상정한 대통령의 연임제한규정 폐지, 비상사태 시 정보통제, 주민 권리 제한을 골자한 헌법 개정안이 부결되었다. 처음으로 차베스의 선거혁명에 제동이 걸렸다. 개헌 반대와 찬성이 각각 50.7%와 49.29%로 나타났다. 근소한 차로 반대세력이 승리했다. 여기서 차베스의 개혁이 제동이 걸리는 듯 했으나, 2008년 11월 2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다시 차베스 진영이 완승을 거두었다. 차베스는 이 여세를 몰아 2009년 1월 5일 대통령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들의 연임제한 폐지를 국민투표에 붙였다. 54.86%가 연임제한 폐지에 찬성했고, 차베스는 이제 영구히 자신의 개혁을 추진할 명분과 힘을 얻었다.

현재 우고 차베스 정부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극명하게 갈린다. 차베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민주적이고, 참여적이며, 진보적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반대자들은 차베스가 독재자요, 쿠바혁명 노선에 기초한 선동가라고 폄하한다. 이처럼 극단적인 대립과 분열상은 베네수엘라의 현 정치상황을 잘 보여준다.

2) 그러나 우리는 차베스의 이념적 동지인 헤인즈 디에테리치(Heinz Dieterich)를 통해 '21세기 사회주의' 기획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21세기 사회주의' 이론가 중 하나인 디에테리치는 '21세기 사회주의'를 한마디로 참여민주주의의 체제를 사회 전반으로 확대하는 체제라고 주장한다. 명백하게 반제국주의와 반신자유주의를 목표로 하는 체제다. 부르주아 문명과는 질적으로 다른 문명을 지향하며, 자본주의에 의존한 현 제도를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는 것을 포함한다. 즉, 시장경제를 민주적 과정을 통해 계획 가치경제로 대체하고, 계급주의적 국가를 대중에 봉사하는 체제로 바꾸는 것이다. 무엇보다 황금만능적인 사고에 의존한 민주주의가 아닌 직접민주주의를 지향한다 (Dieterich 2007, 440-441).

IV. 베네수엘라의 가톨릭교회

IV.1. 1958년에서 1998년까지

1960년대와 70년대 사이에 베네수엘라 가톨릭교회는 교회 내 갱신을 부르짖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와 제2, 3차 라틴아메리카주교회의의 영향으로 개혁적인 새 사목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동시에 내부적으로 단결을 유지하며 푼토피호체제에 기초한 정치 프로젝트에 주요 동조자로 참여했다. 기독교사회당과 민주행동당의 협력 정국은 가톨릭교회가 사목, 사회사업, 교육 등 사회적으로 뿐 아니라 법률적으로 교회의 제도성을 보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1968년 기독교사회당이 처음으로 정권을 획득하자 교회는 더 많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1961년 교황은 호세 움베르토 킨테로를 베네수엘라 최초의 추기경으로 임명했다. 1964년 정부는 가톨릭교회와 과거 식민시대에 맺었던 ‘파트로나토(Patronato Ecclesiastico)협약’을 대체하는 ‘모두스 비벤디(Modus Vivendi)협정’을 맺었다.³⁾ 이 협정은 상호존중의 원칙을 기초로 교회와 국가 사이의 분리를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교회에 필요한 재정을 후원해야 한다는 기존 조항은 그대로 남겨두었다. 이 협정으로 국가와 교회 사이에 오랫동안 지속되던 분쟁은 해결되었다. 이제 가톨릭교회는 19세기 독립이후 국가로부터

3) 이 협정에는 로물로 베탄쿠르트 대통령과 교황 바오로 6세가 서명했다. 중요 조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베네수엘라)는 가톨릭 예배의 공적 거행과 영적 권한을 인정하고 보장한다(1조), 국가는 가톨릭교회의 회칙, 칙령, 사목교서 등의 문서 발표를 인정한다(2조), 국가는 성좌와 바티칸시국을 국제법적인 권한을 가진 기구와 국가로 인정한다(3조), 공화국 내에서 가톨릭교회를 공적법인으로 인정한다(4조), 교구나 사목구 설정 시 정부와 사전에 협의한다(5조), 대주교와 주교 임명 시 대통령의 반대가 있으면 다른 후보로 교체한다(6조), 대주교와 주교, 보좌주교는 베네수엘라 국민이어야 한다(7조), 카테드랄이나 교구 대성당은 교황청이 관리한다(8조), 정부는 교회의 관리와 유지를 위해 계속해서 ‘교회세’를 할당한다(11조), 정부는 계속해서 가톨릭 선교를 후원하고 보호한다(12조), 외국인 사제와 수녀는 정부당국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체재할 수 있다(13조), 가톨릭교회는 자유로이 대신학교와 소신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14조), 이 협정은 의회에서 기독교사회당 뿐 아니라 무소속 의원들을 포함해 모든 정당의 지지를 받았다(Rodríguez Iturbe 1968, 271-292).

진보와 근대사상에 반대하는 고집불통의 우매주의자로 비난받는데서 벗어나,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에 진보와 국가 근대화를 지원하는 세력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가톨릭교회와 국가의 관계 정상화는 교회의 성장을 도왔다. 1960년 11개 교구에 14명의 주교가 사목을 담당했으나, 1998년 34개 교구에서 44명의 주교가 활동할 만큼 발전했다(Conde Tudanca 2007, 2). 교회는 빈민층에 대한 봉사도 점차 확대했다. 60년대 중반 이후 ‘페 이 알레그리아’(Fe y Alegría)라는 민중교육 단체를 조직했다. 이 무렵 교회 내 공식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가톨릭대학들이 전국적으로 설립됐다. 그러나 가톨릭교회는 만성적인 사제 부족 현상으로 고전했고, 이 공백을 외국인 사제들이 들어와 메워야 하는 문제점도 있었다.

1968년 콜롬비아 메데진에서 열린 제2차 라틴아메리카주교회의는 이 대륙에 만연한 사회문제를 복음의 시각에서 다룬 중요한 모임이었다. 가난과 억압, 불의와 폭력이 만연한 라틴아메리카의 현실을 ‘죄의 상황’과 ‘제도화된 폭력’의 상황으로 진단했다(Secretariado General del CELAM 1968, 65-76). 그리고 신자들에게 인간 해방을 위한 호의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회변화에 적극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그 후 가톨릭교회 내부에 진보적 성향의 해방신학이 등장해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다. 1979년 멕시코의 푸에블라에서 열린 제3차 라틴아메리카 주교회의는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을 할 것을 촉구했다(Secretariado General del CELAM 1979, 292-298).

베네수엘라 가톨릭교회는 이 호소에 브라질, 칠레, 페루 교회만큼 적극적으로 협력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수녀들과 예수회를 비롯한 진보노선의 성직자들이 이 호소를 외면하지 않았다. 베네수엘라 주교회의는 자신이 직접 앞장서 이런 사목 노선의 도입을 장려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경우 간접적으로 지원했다. 특히 인권수호에 있어서는 적극성을 보였다. 당시 교회 내부의 분위기는 사목 노선의 다원성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어서 서로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다.

1985년 처음으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베네수엘라를 방문해 교

회의 복음화 노력을 치하였다. 1989년 카라카소(Caracazo) 민중소요 사태가 발생했을 때 교회는 민중 층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석유로 창출되는 부가 민중에게까지 도달되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1992년 두 차례 쿠데타 시도 앞에서 주교들은 국가적 비극 사태를 통해 정치인들이 각성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정당과 정부가 내건 공약이 실천되지 않고 있음을 개탄했다. 경제위기로 사회 내에 만연하고 있는 도덕적 해이와 부패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동시에 주교회의는 쿠데타 주도세력이 정부에 의해 생명과 기본적인 권리가 유린되지 않도록 주교들과 성직자들을 감옥으로 파견해 인권 감시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했다(Luna 2009). 1990년대 들어서면서 베네수엘라 가톨릭 주교회의는 정당 간 협정에 의한 통치시스템의 실효성을 의심했다. 주교들은 무능하고 부패한 기존 정당이 위기 극복을 위한 모델이나 변화를 주도할 지도력, 원리, 이념이 없다고 판단했다(González 2006, 166).

그러나 교회 내부적으로는 활력이 넘쳤다. 1995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벨라스코 대주교를 추기경으로 임명했고, 1996년에 다시 베네수엘라를 방문했다. 주교회의는 라파엘 칼데라 대통령이 기독교사회당 소속임에도 그의 집권기 내내 비판적 자세를 보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정부에 종속된 기구가 아닌 독립적 존재임을 분명히 했다. 정당 등 정치조직이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념적 빈곤과 부패로 국민의 지지를 상실할 때, 가톨릭교회는 베네수엘라의 도덕적 상징으로 부상했다.

IV.2. 우고 차베스와 가톨릭교회의 갈등과 충돌

IV.2.1. 상호탐색과 존중의 시기

지난 40년간 베네수엘라 정치체제의 근간이던 푼토피호체제가 붕괴되고 새 정치·사회질서가 수립되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자 가톨릭교회도 이에 적응하고 자신의 위상에 걸맞은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 교회의 영향력은 새 정부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달려있었다.

당시 교회 내부 사제와 평신도 중에도 우고 차베스에 대해 기대와 호감을 갖는 세력이 존재했었다.⁴⁾ 주로 해방신학에 매료된 성직자와 사회변혁운동에 적극적인 평신도 지도자들이 차베스의 사회개혁정책과 민중층을 중시하는 정책 노선에 기대를 걸었다.

우고 차베스는 집권 후 정부와 교회의 상호존중 전통을 그대로 유지했다. 낙태문제와 같은 논쟁적 문제들에 대해 침묵하며 교회와 직접 충돌을 피했다. 주교회의는 정부에 적극적인 사회정책을 펼 것을 요구했고 정치·사회개혁을 위한 차베스의 제헌의회 소집에 지지를 표했다. 당시 국민 대다수는 차베스를 볼리바르를 숭상하는 민족주의자로 이해했지 급진적 좌파로 생각하지 않았다(Hernández 2009). 우고 차베스는 1999년 1월 10일 대통령 당선자 자격으로 주교회의 총회를 전격 방문해 주교들과 대화를 나누고 국정에 협력을 당부했다. 차베스는 제헌의회 구성에 사제나 주교의 참여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으나, 주교회의는 교회가 해야 하는 역할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정중히 거부했다(Ovidio Pérez 2009).

그러나 새 내각이 구성되고 차베스 주변이 군부 출신 뿐 아니라 전직 게릴라와 좌파세력으로 채워지자 주교들은 차베스 정부에 대해 경계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개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나타나는 대통령에 대한 권력집중 현상을 우려했다. 그러던 중 주교들을 불쾌하게 만든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정부가 교회에 사회정책과 복지 명목으로 지원하던 보조금을 75%나 삭감한 것이다. 게다가 전례 없이 종교국 책임자 자리에 처음으로 비가톨릭 신자를 임명했다. 더 나아가 반교회적인 인사들을 정부 주요 장관직에 임명함으로써 차베스 정부는 관계 악화의 단초를 제공했다(Conde Tudanca 2007, 2-4).

주교회의가 새 헌법 승인 반대투쟁에 전적으로 뛰어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반대의사를 표명한 상태에서 새 헌법이 국민의 압도적

4) 산 크리스토팔 교구의 대주교인 마리오 모론타(Mario Moronta)가 이 노선을 대표한다. 영국의 가톨릭 신문인 *The Tablet*에 따르면, 우고 차베스가 1998년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베네수엘라 가톨릭 성직자 중 거의 80%가 그가 제시한 사회 개혁 공약을 지지했다(Gambill 2005, 2).

지지로 통과되자 주교들은 당황했다. 내부적으로는 신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새 헌법의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성도 따랐다. 자신감이 충만한 상태에서 차베스는 교회의 동원력이 생각보다 약하다고 판단하고 정면승부를 시작했다. 교회와 혁명 사이에서 민중이 혁명 편을 들고 있다고 판단했다.

IV.2.2. 투쟁으로 돌입

2000년 정부가 준비한 1011호 법령(교육관련 법령)은 이 두 세력이 충돌하게 되는 직접적 원인을 제공했다. 정부는 국립과 사립 교육기관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순회감독관 제도를 신설해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기관들을 통제하려고 했다. 문제는 법령이 교육 당사자들 간의 대화나 합의과정이 생략된 채 정부의 강압적 태도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데 있었다. 시민사회와 교회는 이 법령이 지나치게 교육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한다고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가톨릭교회는 교육이 국가의 이념을 주입시키는 도구로 전략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주교회의 의장인 발타사르 포라 대주교는 이 법이 ‘국가주의 교육법’이라고 비난하며, 교육이 국가의 의무사항 중 하나이나 교육분야는 국가만이 할 수 있는 고유 업무분야는 아니라고 선언했다(*El Nacional*, 2000년 7월 16일). 이에 차베스 정부는 주교들을 대놓고 비난했고, 포라 대주교를 “수단 입은 악마”라고 말하며 모욕을 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주교회의는 2000년 4월 25일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발송해 자신들을 존중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난 정부부터 사라졌던 대통령과 주교단 사이 직접 대화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주교들은 공개서한을 통해 차베스가 “가톨릭교회는 부패의 공범이다. 왜냐하면 지난 40년간 침묵해왔다”, “가톨릭교회는 기존 정부들의 대통령들보다 더 부정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조목 조목 반박했다(Conde Tudanca 2007, 7).

결국 1011호 법령은 시민사회의 항의 목소리 때문에 실행되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이런 우고 차베스의 강압적 태도와 공격성은 반대

세력을 화나게 하고 단결시키는 데 기여했다. 이 법령을 통해 교회는 차베스를 멀리하고 반차베스 진영에 합류하는 계기가 되었다. 동시에 차베스주의자들은 교회를 적으로 간주하고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다. 벨라스코 추기경과 포라 대주교 등 주요 성직자들이 종교행사 집전 중 모욕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반차베스 성향의 주교나 신부들이 관할하는 성당에 그들을 모함하는 벽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2001년 10월 교회와 정부 관계가 냉랭한 상태에서 차베스의 두 번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알현이 성사되었다. 주교회의와 차베스정부 간 대립 상황에서 주교들을 지지했던 교황은 국가와 교회 간 조화로운 관계를 위한 상호협력을 당부했다. 그러나 얼마 뒤 교황대사와 차베스 간 설전이 발생해 교회와 차베스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 2002년 정초 외교사절단을 대표해 교황대사 두푸이(Dupuy) 몬시뇰은 정부 주도 개혁이 지나치게 정치화 하고 급진화 하는 데 대해 염려를 표했다. 정치화와 급진화는 국민의 시선을 정치문제에 집중시키며 실업, 치안불안, 부패 등 수많은 사회문제로부터 국민을 멀어지게 한다고 보았다. 특히 타인의 권리를 약화시키거나 부정하는 사태가 발생하는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힘의 논리’ 보다 ‘논리의 힘’을 사용해 줄 것을 권고했다(Dupuy 2005, 59-62). 그러자 즉시 차베스는 교황대사에게 베네수엘라 주권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며 그의 발언을 외교적으로 문제 삼았다. 차베스는 베네수엘라 국민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응수했다. 그리고 주교들이 자신의 혁명 계획을 지지하지 않는 것은 하느님이 지시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길을 걷지 않는 것이며, 그런 가톨릭교회는 “혁명의 암적 존재”라고 선언했다(Gambill 2005, 1; Conde Tudanca 2007, 9). 이에 대해 주교회의 의장인 포라 대주교는 우고 차베스에게 위의 말은 국가의 수장이 교회에 할 소리가 아니며, 국제적으로 베네수엘라의 얼굴에 먹칠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 일이 있은 후 차베스 개혁에 반대하는 베네수엘라의 교황청 대사 이나시오 키타나(Ignacio Quintana)는 자국 내에서 진행되는 급진 개혁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

장을 표명한 뒤 사임했다(*El Universal*, 2002년 1월 30일).

IV.2.3. 쿠데타의 개입과 갈등의 심화

2002년 4월 반차베스 쿠데타 발생 시 우고 차베스 대통령을 체포한 군 수뇌부는 주교회의의 주요 인사들에게 부탁해 증인이 돼줄 것을 요청했다. 포라 대주교는 체포된 차베스와 함께 있어주었고, 몇 시간에 걸친 대화도 나누었다. 그러나 벨라스코 추기경은 쿠데타 세력이 추대한 새 임시대통령인 상공회의소 의장 에스탕가(Pedro Carmona Estanga)의 권력 승계를 인정하는 문서에 서명했다. 교회를 대표해 한 서명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한 서명이며, 백지 위에 한 서명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추기경이 갖는 국내외적 위상으로 보았을 때 제도교회의 정치개입이라고 판단될 소지가 있었다.⁵⁾ 이런 교회 수뇌부의 움직임은 더욱 차베스주의자들을 자극했다.

교황은 이 사건 이후에 로마로 자신을 방문한 베네수엘라 주교단에게 교회가 국가와 경쟁하는 모습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국가와 개방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것을 부탁했다(*ZENIT*, 2002년 06월 11일). 그러나 베네수엘라 주교들 사이에 차베스 정부와 관계 개선을 위한 변화의 조짐은 보이지 않았다.

벨라스코 추기경은 쿠데타 사건이 있은 뒤 일 년 후 사망했다. 그러나 차베스는 장례식에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교회와 차베스 정부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장례식에서 친차베스주의자들은 벨라스코 추기경에게 조의를 표하는 대신 그를 모욕했다.

2003년 주교회의는 베네수엘라의 현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빈곤, 치안불안, 실업, 부패, 폭력, 살인, 납치, 무단점령 등이 급증한 데 대해 정부의 무능을 꼬집었다. 이에 우고 차베스는 주교들이

5) 이 쿠데타는 국영석유회사 운영진, 반차베스 진영 노조, 주요 기업과 경제인들, 육군 수뇌부, 사설 방송, 가톨릭교회의 지지 하에 발생했다. 주교회의 내에서도 벨라스코 추기경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민감한 정치문제에 교회가 개입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 행동이 경솔했으며 월권적 행동이었다고 보는 주교들이 많았다 (Virtuoso 2009; Ovidio Pérez 2009).

사회 경제적 상황을 왜곡한다고 응수했다. 또한 그는 “혁명을 지원하지 않는 교회 구성원들에 대해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정의의 검을 높이 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ABC Madrid, 2003년 9월 27일).

IV.2.4. 대화와 화해 시도

긴장관계가 계속되자 2004년 교회 내부에서도 반성의 목소리가 나타났다. 가톨릭계 잡지 SIC는 일부 교회의 지도급 인사들이 지나치게 차베스 정부에 대해 다혈질적으로 반응한다고 비판했으며, 전 외무장관이자 프랑스 대사였던 로이 차델톤(Roy Chaderton)은 가톨릭교회는 베네수엘라 화해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거들었다(Conde Tudanca 2007, 12).

우고 차베스도 2005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서거하고 새 교황이 선출되자 교회와의 관계 개선을 희망했다. 주변 상황도 그의 바람대로 호의적으로 변했다. 자신과 충돌했던 교황대사가 떠나고 새 교황대사가 부임했으며, 2005년 10월 새 추기경으로 온건한 호르헤 우로사(Jorge Urosa)가 임명되었다. 게다가 주교회의 내부에서도 강경 일변도의 인사들이 물러나고 우발도 산타나(Ubaldo Santana) 대주교 같은 온건한 인사들이 요직을 차지했다.

2006년 1월 주교들과 차베스 사이에 만남이 이루어졌다. 주교들은 정부가 교회를 존중할 것을 요구했고, 정부와 야당 사이에서 자신들이 중립적 입장임을 강조했다. 같은 해 5월 새 교황 베네딕토 16세와 차베스 간 첫 회동이 성사되었다. 이런 분위기는 자연스레 상호 반성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잠시 휴전상태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IV.2.5. 다시 대립관계로

가톨릭교회의 지도부와 우고 차베스 사이에 모처럼 조성된 휴전 분위기는 2007년 차베스가 RCTV의 방송허가권 연장 신청을 거부하면서 다시 악화되었다. 주교회의는 방송이 정부를 비판한다고 폐쇄하면 사회여론을 수렴하는 언론의 기능이 위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차베스 정부는 RCTV가 심각하게 정보를 왜곡하고 민중을

호도하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응수했다.

2007년 말경 다시금 차베스가 제시한 개헌안 때문에 교회와 차베스 사이에 긴장이 고조 되었다. 주교단은 개헌안이 통과되면 베네수엘라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보았다.⁶⁾ 주교회의는 국민들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베네수엘라가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목교서를 발표했다. 가톨릭교회 지도부는 시민사회세력과 학생운동, 언론과 방송과 연대해 가두행진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무엇보다 전국적 조직망을 통해 가톨릭 신자들을 설득해 투표에 참여하도록 독려했다. 안드레스베요 가톨릭대학 총장인 우갈데(Ugalde) 신부는 직접 가두시위의 선두에 서서 저항 운동에 참여했다. 이 선거에서 반차베스 진영이 승리하면서 처음으로 차베스 정권의 ‘선거혁명’ 신화가 깨졌다. 이 승리로 반대세력이 조직적으로 저항하면 차베스를 물리칠 희망이 있음을 모두에게 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베네수엘라 주교회의는 “함께 건설하기 위한 대화의 시간”(Tiempo de diálogo para construir juntos)이라는 사목서한을 발표하며 자신들이 정치권에 바라는 바를 천명했다.

주교들이 침묵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인간 중심주의, 인권, 유일사상이나 이념적 배제를 거부하는 정치 다원주의, 종교와 초월적 측면이 반영된 교육, 가난, 실업, 사회적 불안, 폭력에 대항한 투쟁, 표현의 자유와 정보를 획득할 권리보장, 박해받거나 자유를 빼앗긴 형제들의 권리회복 등이다(Conferencia Episcopal Venezolana 2007, 2).

6) 차베스 정부와 가톨릭교회의 2007년 개헌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차베스 정부는 개헌안이 더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사회주의 과정을 구체화 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중에게 더 많은 권력을 이전하며, 기존 헌법 보다 더 참여적·평등적이라고 강조했다. 차베스 정부는 이 개정안이 진정한 그리스도교적 이상을 반영하는 개혁적 헌법이라고 찬양했다. 반면 가톨릭교회는 새 개정안이 제한적이며, 배제적이고, 권위주의적 특성을 내포한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뿐 아니라, 권력을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며, 국민들 사이에 정치적 분열을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위험한 프로젝트이며 인간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비전에 배치된다고 역설했다(María Prieto 2009, 8).

우고 차베스는 반혁명 배후세력으로 가톨릭교회 지도부를 지목했다. 가톨릭교회 내부에 주교회의를 위시한 교회 지도부와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인 민중교회를 대립시켰다. 그리고 가톨릭 신도들을 향해 교회는 주교들의 것이 아니며, 기존 지배계급과 협력하는 교회의 지도부를 따르지 말고 진정한 해방자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며, 혁명의 길을 보여 준 해방신학 노선을 추종할 것을 촉구했다(Angel 2007, 1). 동시에 차베스주의자들은 점차 가톨릭교회에 노골적인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다. 2008년 2월 광적인 차베스주의자들이 대주교 공관을 점령하고 시설물들을 파손했으며, 3월에는 교황대사관저에 최루탄을 투척했다.

우고 차베스는 2009년 다시 대통령과 선출직 주요 공직자들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헌법개정안을 들고 나와 국민투표에 붙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직적으로 움직인 차베스 측이 승리하면서 다시 교회를 비롯한 반대세력에 좌절을 안겨주었다.

같은 해 8월 14일 차베스주의자들이 장악한 베네수엘라 의회는 다양한 사회 세력들 사이에 참여한 입장대립이 있었던 새 ‘교육조직법’을 승인했다. 우고 차베스는 즉시 이 법을 공포해 효력이 발생되도록 했다. 이 법은 국가 주도 무상교육, 민중교육, 종교적 색채를 배제한 교육을 천명했다. ‘교육자로서의 국가’ 이미지를 부각시켰고, 교육에 있어 국가의 지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교회가 제공하는 개인주의적이고, 가진 자 중심의 민중 배제적인 교육과는 차별화 된다는 점도 언급했다. 베네수엘라 교육부 차관은 새 교육법이 지니는 이념적·정치적 의미를 숨기지 않았다. 체게바라가 언급한 ‘새 인간’의 출현을 돕는 교육을 통해 새로운 사회주의 건설을 앞당기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교육을 통해 21세기 사회주의 이념과 윤리를 학생들에게 이식하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BBC Mundo, 2009년 8월 16일).

우고 차베스는 이 법을 선포하며 기존의 ‘사업으로서의 교육’ 개념과 ‘제국의 식민들을 양성하는 교육’과 단절한다고 밝혔다(Prensa Latin, 2009년 8월 16일). 그리고 새 법을 통해 그동안 교육에서 배제

되었던 가난한 사람들에게 교육의 문이 활짝 열렸음을 알렸다.

기업가, 사설 방송, 그리고 가톨릭교회가 이 법의 입법화에 가장 먼저 저항했다. 반대자들은 새 교육법이 피교육자에게 차베스가 선전하는 21세기 사회주의 이념을 주입시키는 도구로 전락할 것을 우려했다. 특히 가톨릭교회는 국·공립이나 사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을 공식적으로 배제하는 것 때문에 더욱 강력히 저항했다. 대다수 사설 교육기관과 학원들을 독점하다시피 한 가톨릭교회는 이 법의 시행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이 승인되자 카라카스의 대주교인 호르헤 우로사 추기경은 “학교에서 하느님을 추방할 수는 없다”고 선언했으며, 부모가 자신의 신앙과 종교, 양심에 따라 자녀에게 어떤 종류의 윤리와 가치, 지식을 심어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국가가 박탈하는 것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Noticialavoz, 2009년 8월 13일). 국가에 의한 교육 독점에 대해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좌파는 새 교육조직법을 환영했다. 지지부진하던 사회주의화로의 이행과정에 불만을 표했던 사람들은 이 법이 자국 내 사회주의를 앞당길 것으로 보았다.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교육의 확대가 곧 바람직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첫 걸음이라고 본 것이다.

V. 차베스 정권과 베네수엘라 교회의 관계 분석

한 개인이 절대적 권력을 누리는 국가에서 교회와 국가 관계는 종교지도자인 추기경(혹은 주교)과 위정자 사이의 관계로 압축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과 김수환 추기경처럼 베네수엘라에서도 차베스와 주교회의 의장단이 교회와 국가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차베스 정권과 가톨릭교회 사이의 관계가 악화된 시기는 국가가 교회의 이권 영역에 개입하거나 통제를 시도할 때였다. 차베스 정부

가 교회에 대한 보조금 삭감이나 반교회적 인사를 행정요직에 앉혔을 때 교회는 위협을 느꼈다. 특히 전통적으로 교회가 독점하다시피한 교육시장에서 교회를 배제시키려는 시도는 교회를 더욱 자극했다. 교육은 전통적으로 가톨릭교회가 국가와 함께 양분해 왔던 분야이다. 어떤 의미에서 두 세력 간 이해가 중첩되는 교집합적 공간이다. 국립학교들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립학교들은 직·간접으로 교회와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교회는 기초교육에서 고등교육까지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며, 직접 명문대학과 다양한 성격의 학교를 운영한다. 이 교육 분야는 현금이나 기부와 더불어 교회 수입의 중요한 원천이다. 가톨릭교회에게 교육 영역은 경제적 이권 뿐 아니라 도덕과 윤리를 형성시키며 신자들을 확보하고, 신자 재교육의 장(場)으로 이해되어 더욱 잃을 수 없는 영역이다. 이 부분에서 교회가 소외되는 것은 곧 사회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 감소를 의미한다.

차베스 정부도 이념과 가치를 형성하고 전파하는 수단으로 가장 중요한 두 영역인 언론과 교육 영역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 두 영역의 절반 정도가 보수 우익세력의 손에 있다는 것이 혁명 프로젝트 완수에 장애요소가 된다고 인식했다. 따라서 기존 사설 언론과 방송, 교회를 자신의 영향권 안에 두려했다. 만일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영향력을 축소하거나 제거하려고 시도했다.

한편, 제도교회에 직접적 위해가 되지 않는 영역도 관계를 심각하게 악화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민주주의와 인권 분야가 그렇다. 주교회의는 비극적인 경제위기보다 더 큰 문제를 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고 있는 데서 찾는다. 특히 권력분립의 원리가 지켜지지 않고 한 개인에게 막대한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한다. 이 연장선상에서 차베스체제를 권위주의체제로 이해한다. 포퓰리즘에 기대어 ‘차베스 개인 숭배주의’로 나간다는 것이다. 게다가 차베스가 국가 발전을 위해 국민을 단합시키지 못하고 가정, 직장, 사회 등 전 분야에 갈등과 대립, 분열과 폭력을 조장한다고 본다. 이런 상태에서 교회가 중시하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가 존중될 수 없고, 인간의 존엄성이 확보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립과 갈등 상황에서 반대자가

늘고 정치범이 늘며, 이들에 대한 인권유린이 자행된다고 주장한다. 주교들은 복음이 가르치는 진리와 교회의 사회교리(Doctrina Social de la Iglesia)가 강조하는 인간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믿는다. 이런 관점에서 주교들은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정치나 사회 관련 문제에 개입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주교들이 볼 때 차베스가 이끄는 개혁도 그 급진성과 지나친 정치화로 인해 많은 새로운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급격히 추진되는 사회주의화를 주교회의는 단정적으로 ‘베네수엘라의 쿠바화’라고 표현한다(Ovidio Pérez 2009). 베네수엘라 가톨릭 주교들에게 쿠바는 종교의 자유가 없는 땅을 의미한다. 쿠바 혁명 후 기존 가톨릭교회는 탄압과 감시를 받았고, 성직자들은 추방당한 경험이 있다. 이런 일들이 차베스의 사회주의화 정책을 통해 재현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차베스 정권이 아무리 반신자유주의적이고, 대안 경제로서 연대성을 강조하며, 기득권을 유지시키던 구체제 헤게모니를 타파하고,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를 촉진하는 체제라고 선전해도 주교들은 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주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사회주의는 이미 지난 세기 실패한 모델이자 이념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고 통수권자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중앙집권화하는 권력에 대해 염려한다.

가톨릭교회는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모두 결합을 가진 체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자본주의가 시장을 맹신하고, 노동을 단지 영리의 수단으로 취급하며 개인주의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는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고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받은 무신론 이념에 기초한 결합을 지닌 체제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서구의 전통에서 성장한 가톨릭은 자본주의체제를 더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적대적이었다. 교황 비오 11세가 선포한 회칙 “사십주년”(Quadragesimo Anno)은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사회주의가 교설, 또는 역사적 사실, 또는 “사회운동” 중 무엇으로 간

주되든지 간에, 만일 그것이 진정한 사회주의로 남아 있다면 그것이 본인이 언급해 온 관점에서 진리와 정의에 양보하였더라도, 가톨릭교회의 교리와 합치될 수 없다. 그 까닭은 사회주의가 생각하는 인간 사회는 그리스도교 진리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1931, 48항).

가톨릭의 이런 성향은 주교들로 하여금 결국 베네수엘라에서 차베스가 실현하고자 하는 ‘21세기 사회주의’에 대해 배타적 혹은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게끔 만들었다.

베네수엘라 내에서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도로서의 교회가 정치세력 혹은 시민사회 세력에까지 밀접한 관계를 맺고, 다양한 사회계층의 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정치지형 변화에 개입하고 정권을 비판하거나 반대세력과 동맹해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톨릭교회는 반정부 투쟁에 참여한 사람을 위한 성역 역할을 함으로써 차베스 반대세력의 가장 강력한 지원자요 동맹자로써의 이미지를 굳히고 있다. 게다가 적절한 대항이념을 제공해 반차베스 진영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도 한다. “모든 반대세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독립적 기반 중에 하나는 한 정권과 진정으로 일치할 수 없을 때의 교회일 수 있다”고 말한 린즈의 주장처럼, 베네수엘라에서 가톨릭교회는 차베스의 가장 강력한 대항세력 가운데 하나이다(Linz 1973, 200). 특히 민주행동당이나 기독교사회당의 경우처럼 정치 정당이 반대세력으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 가톨릭교회의 정권의 대항세력 이미지가 더욱 부각된다.

베네수엘라 가톨릭을 대표하는 주교회의는 차베스 혁명 프로젝트에 대해 위험성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지만, 정부로부터 뿐 아니라 동시에 야당 등 반대세력에게도 정부의 협력자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가톨릭교회는(주교회의 자신을 비롯하여 가톨릭대학들, *Fe y Alegría*, 각 지역 교구들 등) 주로 사회사업과 민중교육 명목으로 차베스정부로부터 35만 볼리바레스 푸에르테스를 제공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빗대어 좌익은 “교회는 자신에게 돈을 주는 주인을 무는 개다”라고 비난한다(Natera, 2009).

차베스정권은 주교회의와 그 지도부의 핵심 인사들을 비난하거나 모욕을 줌으로써 정부와 교회 간 긴장관계를 야기했다. 교회 측도 반차베스 쿠데타를 적극 지원하거나 후원함으로써 정부를 자극했다. 역사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교회와 정부 간의 충돌은 양측의 이미지에 손상을 입혔다. 차베스가 취한 교회 지도부의 권위실추전략과 분열정책은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베네수엘라에서 가톨릭교회는 아직도 국민에게 가장 신뢰받는 세력이다.⁷⁾ 교회를 국가 통제 하에 놓으려는 시도나 교회의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노력은 실패했다. 차베스를 지지하는 종교인들이 조직한 ‘베네수엘라 개혁가톨릭교회’는 신자들의 지지나 관심을 끌지 못했다.⁸⁾ 민중들도 이 교회를 외면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교회분열정책과 같은 위협은 주교와 신부로 하여금 더욱 일치하여 반차베스 투쟁에 나서게 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에서 가톨릭교회와 차베스정권과의 갈등관계는 상당부분 브루노가 지적한 대로 이념이나 종교조직체의 교리적 성향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 체제를 수용하기 힘든 주교단은 차베스에 대립할 수 밖에 없고, 차베스는 더 민중 참여적이고 평등한 세상을 건설하려는 정치프로젝트를 반대하는 가톨릭 주교단에 대해 배타적 태도를 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베네수엘라에서 정치와 종교, 국가와 교회의 관계는 잉거가 말한 정치권력에 대한 종교의 도전관계로 분류될 수 있겠다. 또한 주교단이 자신의 초월적 이상에 견주어 그에 못 미치는 사회체제를 비판하고 도전하고 있는

7) Datanalysis에 통계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국민은 가장 공신력을 가진 사회영역이나 기관으로 가톨릭교회(73.2%)를 지목했다. 그 뒤를 이어 은행(66%), 상인(65.1%), 기업인(63.8%), 언론(60.9%) 순이었다(*El Nacional*, 2004년 5월 30일).

8) ‘베네수엘라 개혁가톨릭교회’는 사회주의와 차베스의 개혁을 종교적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가톨릭과 루터교에서 이탈한 성직자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베네수엘라 주교회의는 이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교회가 분열되어 있다는 인상을 국민들이 갖게 하기 위해 차베스 정권이 이 교회를 지원한다고 주장한다. ‘베네수엘라 개혁가톨릭교회’의 수장이며, 옛 솔리아주 교회의 보좌주교였던 존 젠 시우 가르시아(Jon Jen Siu García)는 “우리는 차베스 대통령이 하는 것처럼 하층계급을 바라보는 법, 자본주의 가치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법, 미제국주의에 대항해 투쟁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며 우고 차베스에 대한 사상적 친밀감을 표출했다(Krauze 2008, 107).

므로 벨라가 말한 ‘창조적 긴장’관계라고 부를 수 있겠다. 단지 이런 대립과 긴장관계가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종교발전에 기여할 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거꾸로 대립과 갈등, 미움이 상존한 상태에서 화해와 평화보다 소모적 국론 분열을 야기한다고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베네수엘라에서 주교단이 취하는 태도를 예언자적 사명이라고 부를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주교단이 분명히 불의와 억압, 인권유린에 대해 고발하고 있지만 민중에게 해방과 희망을 주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민중층은 불의한 옛 체제로의 회귀를 바라지 않는다. 베네수엘라에서 주교들은 민중층, 가난한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보다는 사회주의, 권위주의, 독재화, 민주주의 후퇴라는 두려움 때문에 중산층, 가진자들, 지배층의 이념을 더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그람시의 관점에서 볼 때 주교단은 지배층이나 중산층과 결탁한 유기적 지식인에 더 가깝다. 주교단은 특히 공격적이고 독재적인 차베스의 개인 성향을 우려한다. 따라서 정권의 권위주의적 성격과 권력을 한 개인에게 집중시키는 것에 거부감을 보인다. 주교단은 민주적 방식으로 선출된 차베스의 합법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사회주의화를 지향하는 차베스 정권에 대해 도덕적 정당성은 부여하지 않으며 정권의 반대세력에 지지를 표하고 있다. 주교들은 자본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선에서 점진적 개선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VI. 결론과 전망

베네수엘라에서 차베스와 가톨릭교회의 관계를 요약하자면, 초기에 정부와 교회는 상호 존중의 시기를 보냈으나 정치개혁을 보는 입장 차이와 상호 이해가 결린 사안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투쟁으로 돌입했다. 교회가 반차베스 쿠데타의 지원세력이 되고, 추기경이 쿠데타 세력이 천거한 인물을 새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문서에 서명하자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그러자 교회 내부에서 지도부의 태

도에 대해 비판하는 의견이 표명되었다. 주교회의 의장단과 교황대사가 교체되자 차베스정권과 관계 개선을 위한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다시금 언론자유 침해와 영구집권을 위한 개헌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느낀 새 주교회의 지도부는 반대세력을 고무시키고 독려하면서 전면적인 반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차베스는 결국 교육조직법을 통해 교회의 특권을 박탈하고 영향력을 축소하는 전략으로 응수했다.

향후 베네수엘라에서 교회와 국가 관계는 전적으로 절대 권력을 쥔 차베스의 태도에 달려있다. 차베스는 본인이 누누이 이야기한대로, 가톨릭교회가 지배세력, 우익, 가진 자, 미제국주의자의 이권을 대변하는 기구요, 혁명의 중요 장애세력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차베스는 그동안 교회에 대해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했다. 개인적으로 자신도 가톨릭신도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교회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장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을 하지 않는 교회의 지도부 노선에는 반대한다. 우고 차베스는 교회의 지도부를 욕하면서도 미사에 참여하고, 성모에 대한 신심을 드러내고 기도하는 모습을 자주 국민 앞에 보여준다. 교회를 단순히 야당과 같은 반대세력으로 치부하지도 않는다. ‘페 이 알레그리아’ 등 민중층에 영향력이 확고한 교회 내 주요 단체들을 규합해 자신의 세력으로 만들지도 못했다. 오히려 초기에 차베스의 개혁에 기대를 걸었던 사제나 평신도들은 오늘날 차베스를 실망스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현재 베네수엘라 교회의 한계는 가톨릭 신도에 대한 장악력을 차베스 정부와 나누어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차베스의 가장 강력한 지지 세력은 가난한 민중들인데 이들은 동시에 가장 신심이 강한 가톨릭 신도들이다. 또한 교황청이 베네수엘라 교회의 협력자이긴 하지만 국내 문제에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바티칸은 정치시스템 상 하나의 독립된 국가이며,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교황이 전권을 행사하는 종교적 기구이다. 교황대사를 통해 교황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독립적 주권을 가진 국가에 도덕적 영향력을 행사

하는 것 말고는 국가에 대해 직접적 압력을 행사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른다. 한 마디로 이 두 정체(국가기구인 동시에 종교기구)는 베네수엘라 국내 문제에 개입하는데 바티칸이 갖는 힘이자 동시에 한계이다. 따라서 독립 교회로서 전권을 지닌 베네수엘라 주교회의가 하는 대로 지켜볼 뿐 교황의 개입은 중재나 권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차베스 정권이 최근 개신교에 대해 한 공개적 지원이나 호감 표명은 향후 가톨릭과의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베네수엘라에서 개신교의 입지는 점점 강화되고 있다. 가톨릭 교회의 기존 특권들이 점차 축소되는데 반해, 종교 간 평등, 예배의 자유 확대를 강조한 차베스정부의 정책 때문에 개신교는 점차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최근 개신교 신도의 수도 급격히 증가했다. 개신교 측에서도 가톨릭교회와 정부 사이의 악화된 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증대하려는 시도를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한 예로 2009년 오순절교 지도자들은 새 교육조직법에 대해 공개적 지지를 표명했다. 따라서 우고 차베스가 가톨릭 세력을 견제하고 그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경쟁 관계에 있는 개신교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En este trabajo se analiza la relación entre Hugo Chávez Frías y la Iglesia católica. Hoy día, esta relación ha sido un tema muy frecuentemente mencionado pero muy poco entendido.

Al principio, cuando tomó el poder Hugo Chávez, despertó muchas simpatías en diversos sectores eclesiásticos. Muchos clerigos, incluso obispos vieron con optimismos las nuevas ideas de compromiso social y opción a favor de las clases populares de Hugo Chávez. Pero, pronto esta expectativa se desapareció. La jerarquía eclesiástica se dio cuenta de que el proceso de la reforma de Chávez afectaría la democracia del país y los intereses de la Iglesia católica. La conferencia episcopal venezolana empezó a alertar a la sociedad sobre los peligros de seguir un plan político que genera la concentración del poder en manos de una sola persona. Los obispos criticaron al gobierno de Chávez por ser autoritario y antidemocrático.

Al mismo tiempo, Hugo Chávez atacó a los obispos por sus posturas oligárquicas, conservadoras y antireformativas. Chávez consideró que la jerarquía de la Iglesia católica venezolana era uno de los “tumores” del país. Por eso para debilitar el peso sociopolítico de la institución eclesiástica, Chávez intentó dividir a la Iglesia. Sin embargo, no pudo obtener su meta. Tanto el gobierno de Chávez como la Jerarquía eclesiástica quisieron evitar el choque frontal, por eso requerían las mediaciones externas y una actitud reconciliatoria. Sin embargo, el período de diálogo no duró mucho.

Cuando el gobierno rechazó la renovación de concesión al canal Radio Caracas Televisión e impuso la ley de la reforma educativa, ambos lados se enfrentaron nuevamente. Ante el gobierno, los obispos exigieron la democracia, los derechos humanos, el pluralismo político frente al pensamiento único, la libertad de expresión y de religión, etc.

Así, la Iglesia católica se convirtió en un firme oponente del gobierno de Chávez. La Iglesia católica es una realidad en Venezuela que tiene un alto nivel de credibilidad y penetración en el sector popular.

Las futuras relaciones entre la Iglesia y el gobierno venezolano dependerán de la actitud de Hugo Chávez, puesto que este mandatario es el único director de orquesta de la vida política nacional.

Key Words: La relación entre la política y la religión, Gobierno de Hugo Chávez, Iglesia católica venezolana, Complicto político, Revolución bolivariana / 정치와 종교 관계, 우고 차베스 정부, 베네수엘라 가톨릭교회, 정치 분쟁, 볼리바리안 혁명

논문투고일자: 2010. 04. 05

심사완료일자: 2010. 05. 12

게재확정일자: 2010. 05. 14

참고문헌

- 김영섭(2007), 『베네수엘라 체제 변환의 동학: 폰토피호협약 민주주의에서 차베스 포퓰리즘까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 박사학위논문.
- 로버트 벨라(1981), 『사회변동의 사회구조』, 박영신 옮김, 삼영사.
- 오경환(1990), 『종교사회학』, 서광사.
- 교황 비오 11세(1931), 「사십주년」, in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편), 『사회교리에 관한 교회문헌: 교회와 사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Angel, María(2007), “Hugo Chávez lanza un fuerte desafío contra la Iglesia católica,” http://radiocristiandad.wordpress.com/2007/07/23/hugo_chavez_lanza_un_fuerte_desafio_contra_la_iglesia_catolica/
- Arráiz Lucca, Rafael(2007), *Venezuela: 1830 a nuestros días*, Caracas: Editorial ALFA.
- Bautista Urbaneja, Diego(2009), *La política venezolana desde 1958 hasta nuestros días*, Caracas: Centro Gumilla y UCAB.
- Bruneau, Thomas(1974), *The Political Transformation of the Brazilian Catholic Church*,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nde Tudanca, Rodrigo(2007), “Tensas relaciones entre la Iglesia católica y el Gobierno de Hugo Chávez en Venezuela 1999-2006,” http://www.reseau_amerique_latine.fr/ceisal_bruxelles/HIST_RI/HIST_RI_2_CONDE.pdf
- Conferencia Episcopal Venezolana(2000a), *Compañeros de camino. Cartas, instrucciones y mensajes, 1958-1979, tomo I*, Caracas: CEV.
- _____(2000b), *Compañeros de camino. Cartas, instrucciones y mensajes, 1980-1999, tomo II*, Caracas: CEV.
- _____(2007), “Tiempo de diálogo para construir juntos,” www.cev.org.ve/doc/final.pdf
- Dieterich, Heinz(2007), “La revolución bolivariana y el socialismo del siglo XXI,” *Paradigmas y utopías*, No. 8, pp. 439-445.

- Dupuy, André(2005), *Palabras para tiempos difíciles*, Caracas: [s. n.].
- Gambil, Jill(2005), “Batalla entre la Iglesia y el Estado: El pobre es la víctima,” *VenEconomía*, Vol. 22, No. 7, pp. 1-3, http://www.veneconomy.com/site/files/articulos/artEsp4143_2850.pdf
- González Oropeza, Hermann(1977), *Iglesia y Estado en Venezuela*, Caracas: UCAB.
- González González, George(2006), “Los cónclaves y la influencia de la Iglesia en los procesos electorales en referencia a la democracia venezolana,” *Cuestiones Políticas*, No. 36, pp. 155-175.
- Gramsci, Antonio(1981), *Antología*, México: Siglo XXI.
- _____(1986), *Guadernos de la cárcel IV*, México: Era.
- Hernández Muñoz, Eladio(2008), *Transición en Democracia (Venezuela, 1935-1999)*, Cracas: Universidad Central de Venezuela.
- _____(2009), Entrevista con el autor, el 30 de julio, Caracas.
- Krauze, Enrique(2008), *El poder y el delirio*, Caracas: Editorial Alfa.
- Levin, Daniel(1981), *Religion and Politics in Latin America: The Catholic Church in Venezuela and Colombi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Linz, Juan(1973), “Opposition in and under An authoritarian Regime: The Case of Spain,” in Robert A. Dahl(ed.), *Regimes and Opposition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López Maya, Margarita(ed.)(2009), *Ideas para debatir el socialismo del siglo XXI*, Caracas: Editorial Alfa.
- Luna, Carlos(2009), Entrevista con el autor, el 28 de julio, Caracas.
- Maduro, Otto(1978), *Religión y conflicto social*, México: CRT.
- Maria Prieto, Carmen y Lordes Molero de Cabeza(2009), “El enfrentamiento Iglesia-Gobierno venezolano en torno al Proyecto Reforma Constitucional en el discurso de los medios digitales: un acercamiento desde el análisis del discurso,” <http://www.scielo.org.ve/>
- Natera, Francisco(2009), “La revolución Bolivariana sostiene en parte a la Iglesia católica con Bs. F. 34 millones,” <http://www.aporrea.org>.

- Ovidio Pérez, Ramón(2009), Entrevista con el autor, el 8 de agosto, Caracas.
- Pérez, Arturo(2009), Entrevista con el autor, el 20 de julio, Caracas.
- Rodríguez Iturbe, José(1968), *Iglesia y Estado en Venezuela (1824-1964)*, Caracas: Universidad Central de Venezuela.
- Secretariado General del CELAM(1968), *Medellín: La Iglesia en la actual transformación de América Latina a la luz del Concilio Vaticano II*, México: Librería parroquial de Claveria.
- _____ (1979), *Puebla. La evangelización en el presente y en el futuro de América Latina*, México: Librería parroquial de Claveria.
- Smilde, David(2004), “Los evangélicos y la polarización: La moralización de la política y la politicación de la religión,” *Revista Venezolana de Economía y Ciencias Sociales*, Vol. 10, No. 2, pp. 163-179.
- Sosa, Arturo(2002), “La Iglesia católica en la Venezuela actual,” *SIC*, No. 643, pp. 100-102.
- _____ (2007), “El proceso político venezolano 1998-2007,” *SIC*, No. 700, pp. 487-507.
- Virtuoso, José(2009), Entrevista con el autor, el 27 de julio, Caracas.
- Weber, Max(2004), *Economía y sociedad*, México: FCE.
- Yinger, Milton(1970),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London: Macmillan.

신문과 교회의 정기간행물

ABC MADRID

BBC Mundo

El Universal

El Nacional

Noticia la voz

Prensa Latin

ZENIT

